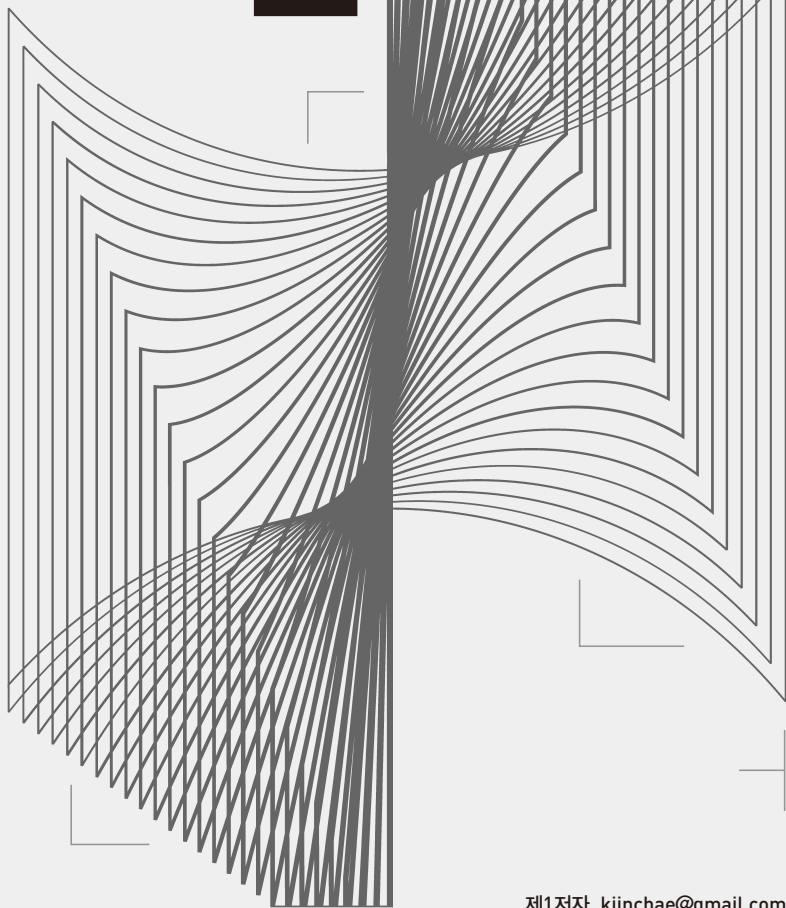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9호

(2026/여름)



제1저자. kjinchae@gmail.com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한국 종교유산

생활성 지표체계의 구성과 탐색적 적용

채경진(국가유산정책연구원 · 정책연구실 · 실장)

<https://doi.org/10.21738/JHS.2026.8.59.461>

I. 서론

■ 전 세계적으로 종교유산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종교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종교적 흔적이 아니라, 현재 공동체의 정체성, 신앙체계, 사회문화적·종교적 소속감을 강화하는 장소로 기능한다. 이는 역사와 예술의 상징으로서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신자 공동체의 영적 중심지이자 공간으로서 종교적 가치를 지님을 의미한다.¹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UNESCO World Heritage Centre)에 따르면, 세계유산목록 등재유산의 약 20%는 종교적 또는 영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세계유산목록에서 가장 큰 주제 범주로 분류된다.²

기존 연구의 흐름은 종교와 관련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관광객 유치와 장소 브랜딩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에 주목해 왔다. 특히 종교의 유산화는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동시에 장소의 인지도와 관광매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적 효과는 지역경제와 유산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과잉관광(overtourism), 상업화, 장소 훼손

1 O. Fernández-Álvarez, M. González-González & S. Ouali-Fernández, "Religious Heritage: Reconciliation between Spirituality and Cultural Concerns", *Rupkatha Journal*, 14/4(2022), p.1.

2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Initiative on Heritage of Religious Interest", <https://whc.unesco.org/en/religious-sacred-heritage/>, 접속일자: 2026년 3월 10일.

손, 보존목표와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따라서 종교유산의 활용은 관광객 유치 자체보다 종교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 보존의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³

이러한 현상은 종교유산이 종교적 의미 외에도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기 때문인데, 그렇기에 종교유산은 일반 문화유산과 달리 물리적 보존상태만으로 가치를 설명하기 어렵다. 종교적 기원을 지닌 건축물 등의 유산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뿐 아니라 현재의 신앙 활동, 의례 수행, 공동체의 참여, 장소의 지속적 활용을 통해 의미가 유지된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유산은 과거의 잔존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종교적 기능과 공동체적 활용이 지속되는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⁴

이에 따라 최근 종교유산 연구는 종교와 유산을 별개의 범주 또는 대립적 범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양자의 상호 얽힘과 모호한 경계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종교적 실천과 문화적 보존, 순례와 관광, 신앙공동체와 공공관리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환원되기 어렵다.⁵ 이러한 관점은 종교성과 문화유산성을 경쟁적 가치가 아니라 동시에 작동하는 구성 요소로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의 종교유산에 대한 연구에서도 종교성과 문화유산성은 상호 배타적인 가치라기보다 의례의 지속이 유산가치를 유지하고 역사적 깊이가 종교적 실천을 정당화하는 상호구성적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⁶

3 O. Fernández-Álvarez, M. González-González & S. Ouali-Fernández, *op. cit.*, p.2.

4 M. Tamma & R. Sartori, "Religious Heritage: Sharing and Integrating Values, Fruition, Resources, Responsibilities", in S. Pinton & L. Zagato(eds.), *Cultural Heritage: Scenarios 2015-2017*, Venice: Edizioni Ca' Foscari, 2017, p.558.

5 A. Niedźwiedz,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Sacred Heritage: Religions and Material Culture", *Religions*, 15/12(2024), article 1520, pp.1~2.

6 K. Chae, "Religious Heritage and the Governance of Living Sacred Space: A Multi-Religious

한국의 경우, 종교유산은 정책적으로 주변 영역이 아니다. 국가유산청(2026)의 2025년 12월 31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국가지정 또는 등록된 유산 총 5,279건 중 종교유산(국가무형유산 제외)은 1,997건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하고 있다. 불교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비율이 높고, 천주교 및 개신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⁷

〈표 1〉 국가지정 · 등록 종교유산 현황(2025.12.31. 기준)

구분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기타
국보	194	1	—	—	—
보물	1,423	50	—	—	1
사적	54	41	9	3	10
명승	10	—	—	—	—
천연기념물	19	—	—	—	—
국가민속 문화유산	6	10	1	—	19
국가등록 문화유산	38	5	50	38	14
합계	1,744	108	60	41	44
비율(%)	87.3%	5.4%	3.0%	2.1%	2.2%

* 기타는 원불교, 천도교, 수운교, 장승, 단군신앙, 당산 등이 포함됨.

출처: 국가유산청(2026)⁸에서 일부 수정 · 보완

Perspective”, *Religions*, 17/4(2026), article 466, pp.1~2.

7 국가유산청, 『통계로 보는 국가유산 2025』, 2026, 12쪽.

8 같은 책.

종교유산은 성스러운 장소와 건축물, 예술품과 같은 유형적 요소뿐 아니라 의례, 전통, 관습, 종교적 실천 등 무형적 요소를 함께 포함하는 복합적 유산이다. 따라서 역사적·예술적·기술적 가치만으로 종교유산을 평가할 경우, 종교유산을 다른 문화유산과 구분하는 신성성과 현재적 종교생활과의 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⁹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종교유산의 개념과 특성을 반영한 조사체계가 충분히 정립되지 못했다. 기존 문화유산 조사체계는 주로 지정 여부, 물리적 보존상태, 소유·관리 주체, 보수 이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유산의 생활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종교유산 정책에서 중요한 함의를 보여준다. 종교유산이 살아있는 유산이라면 보존에 있어서 물리적 원형유지에만 한정될 수 없다. 종교유산의 지속가능성은 의례나 신앙활동의 지속, 공동체의 참여, 종교적 기능의 유지, 공간의 일상적 활용과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종교유산을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문화유산 지표에 더해 생활성을 포착할 수 있는 별도의 지표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종교유산의 생활성을 조사 가능한 지표로 구성하고 실증 조사하여, 적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국가지정·등록 종교유산을 대상으로 생활성 관련 항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시도하고, 그에 따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9 L. F. C. de Aquino & M. T. Franca Filho, "Law and Sacred Heritage: Towards a Juridical Definition of Religious Cultural Heritage",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2025.

II. 이론적 논의

1.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종교유산

유산은 과거의 사물이나 사건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공동체가 과거를 해석하고 공유하는 서사를 통해 현재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과정이다.¹⁰ 종교유산 역시 신앙공동체가 공유하는 기억과 실천을 통해 의미가 지속되므로, 공동체성은 종교유산의 생활성을 파악하는 핵심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종교적 장소와 사물을 문화유산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은 종교적 의미를 제거하는 단순한 세속화라기보다, 종교를 집단정체성, 기억과 소속감의 문화적 언어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형태의 신성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¹

또한 종교유산은 과거의 종교적 흔적에 머무는 유산이 아니라, 현재에도 신앙과 의례, 문화적 활용, 교육과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중첩되는 살아있는 역사·건축·사회적 유산이다. 이러한 복합적 활용구조는 종교유산을 일반 문화유산과 구분하는 특성이며, 보존과 활용, 신앙공동체와 방문객의 요구를 함께 고려하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필요로 한다.¹² 따라서 종교유산의 보존은 접근성과 현재적 활용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산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의미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¹³

이렇듯,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종교유산의 개념은 유산과 관련

10 L. Smith, *Uses of Heritage*, 2006, 재인용: M. van Dijk, A. Irving & T. Weir, "We Have Heritage, Therefore We Are", in A. Barel et al., *Inclusion, Religion and Heritage in Secular Adult-Learning*, 2022, pp.11~12.

11 M. Burchardt & N. Y. Ural, "The Future of Religious Pasts: Religion and Cultural Heritage-Making in a Secular Age—Introduction", *Cultural Studies*, 38/5(2024), pp.717~720.

12 M. Tamma & R. Sartori, *op. cit.*, pp.557~558.

13 O. Fernández-Álvarez et al., *op. cit.*, pp.4~5.

공동체 및 신념체계 사이의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연결을 강조한다. 종교유산의 보존은 물리적 형태의 유지관리가 아니라 연속성 자체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⁴ 이러한 연속성은 유산에 부여된 문화적 의미, 중요성, 상징성이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과정 속에서 유지된다.¹⁵ 따라서, 살아있는 종교유산에서 지역공동체와 전통적 관리주체는 물리적 구조의 엄격한 보존보다 지속적인 갱신과 유지관리, 무형적 가치의 연속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차이는 종교유산 관리에서 전문가 중심의 물질 보존기준과 공동체 중심의 생활성 유지 사이에 갈등을 야기시킨다.¹⁷

즉, 살아있는 종교유산의 핵심은 단순한 역사적·문서적 가치가 아니라 종교적 가치가 현재에도 경험되고 지속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종교유산의 살아있음은 보존의 장애가 아니라 보존대상 자체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2. 문화유산과 종교유산의 차이

한국은 2024년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그동안 사용해 왔던 ‘문화재’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국가유산(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체제로 새롭게 관리되고 있다. 행정적으로 종교유산은 문화유산의 하위 범주에 속하지만, 전술한 것처럼 일반 문화유산과 동일한

14 O. Fernández-Álvarez et al., *op. cit.*, p.5.

15 H. Stovel, "Introduction", in H. Stovel, N. Stanley-Price & R. Killick(eds.), *Conservation of Living Religious Heritage*, Rome: ICCROM, 2005, p.1.

16 T. Sharma, "The Paradox of Valuing the Invaluable: Managing Cultural Values in Heritage Places", in E. Avrami, S. Macdonald, R. Mason & D. Myers(eds.), *Values in Heritage Management: Emerging Approaches and Research Directions*, Los Angeles, CA: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2019, p.186.

17 T. Sharma, *op. cit.*, pp.186, 188; H. Stovel, *op. cit.*, pp.10~11.

찾대로 접근하기에는 종교유산만의 신앙행위가 결합된 복합적 가치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나타난다. 따라서 종교유산은 일반적인 문화유산 가치에 더해 현재의 신앙행위와 공동체적 활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조사 항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차이는 활용 여부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종교유산은 일반 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지만, 현재의 의례, 공동체의 일상적 활용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유형적 장소와 사물은 종교적 실천과 무형적 의미로부터 분리되기 어려우며, 보존과 관리에서도 종교공동체의 역할과 현재적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¹⁸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문화유산과 종교유산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문화유산과 종교유산 비교

구분	문화유산	종교유산
범주적 위치	포괄적 문화유산 범주	종교적 기능과 의미를 지닌 유산
핵심 가치	역사, 예술, 학술, 경관	역사, 예술, 학술, 경관+의례
시간성	역사적 가치 중심	역사적 가치와 현재적 종교기능의 연속성
활용 여부	보존·관람 중심 다수	일상적 활용(신앙행위, 교육)
유·무형 관계	유형 중심으로 관리 다수	불가분 관계
관리 주체	공공·소유자·관리자	종교공동체·소유자·공공
보존 원칙	원형 유지	원형 유지+생활성 고려

자료: Stovel(2005), Tamma & Sartori(2017), Aquino & Franca Filho(2025), Sharma(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8 H. Stovel, *op. cit.*, pp.1, 10~11; M. Tamma & R. Sartori, *op. cit.*, pp.557~561; L. F. C. de Aquino & M. T. Franca Filho, *op. cit.*, pp.1~2; T. Sharma, *op. cit.*, pp.186, 188.

이러한 차이는 종교유산 조사에서 물리적 상태나 지정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종교유산은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가 분리되기 어렵고, 종교공동체의 실천 속에서 의미가 유지되며, 보존 원칙 역시 원형 유지와 함께 기능과 생활의 지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종교유산 조사는 보존상태 조사에서 생활성 조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3. 생활성의 분석 개념

종교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종교적 흔적이 아니라, 현재 공동체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장소로 기능한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유산의 생활성은 공동체성과 분리될 수 없다.¹⁹ 종교유산의 가치는 오래된 연대나 희소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공동체가 일상적으로 장소를 이용하고, 의례적 행위를 반복하며, 장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방식은 종교유산의 현재적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²⁰

본 연구에서 생활성이란 종교유산이 현재의 종교적 실천, 공동체의 상주 또는 참여, 공간의 지속적 활용, 예배·의례 등 신앙행위와 교육·전시 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유산으로 기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점에서 생활성은 단순한 활용 여부가 아니라, 유산의 의미가 현재적 실천 속에서 재생산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생활성은 종교유산의 물리적 상태와 구별하여 의례, 공동체 관계, 일상적 공간 사용, 개방 및 활용의 현재적 지속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작적 개념이다.

따라서 생활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생활성은

19 O. Fernández-Álvarez et al., *op. cit.*, p.1.

20 T. Sharma, *op. cit.*, pp.189~190.

의례 등 신앙행위를 포함한다. 즉, 종교유산은 종교의식, 수행, 종교 행사 등을 통해 현재적 의미를 유지한다. 둘째, 생활성은 공동체적 차원을 포함한다. 종교유산은 종교인, 일반 신자,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된다. 셋째, 생활성은 공간적 차원을 포함한다. 종교유산은 종교 활동 공간, 역사·상징 공간, 교육·전시 공간이 중첩된 복합공간으로 기능한다. 넷째, 생활성은 관리적 차원을 포함한다. 종교유산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보존 상태, 수장·전시 기반, 개방성, 활용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III. 조사 설계

1. 생활성 지표 개발

종교유산은 신앙활동, 공동체 상주, 일상적 활용 및 개방 여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생활성을 단일 항목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유형 요소와 함께 의례, 공동체 관계, 공간 사용 등 현재적 기능을 기록할 수 있는 다차원 지표를 구성하였다.²¹ 또한 종교유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조사 항목의 내용적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종교유산 및 주요 종교(불교·유교·천주교·개신교) 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실시하였고,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성을 의례성, 공동체성, 일상성, 공간복합성, 개방성 및 활용성의 6개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기존 연구는 살아있는 종교유산의 연속성, 의례, 공동체 참여,

21 O. Fernández-Álvarez et al., *op. cit.*, p.4.

접근 및 활용의 중요성을 주로 개념적·규범적 차원에서 제시해 왔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이러한 요소를 동일한 조사단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찰 항목으로 전환하고, 생활성의 존속 기반과 사회적 확장 조건을 구분하였다는 데 있다. 의례성, 공동체성, 일상성, 공간복합성은 종교적 기능과 공동체의 현재적 사용을 직접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핵심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개방성 및 활용성은 이미 존재하는 생활성이 일반인의 접근과 교육, 전시, 체험 등의 방식으로 공유되는 범위를 보여주므로 확장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여섯 차원은 상호 배타적인 개별 척도라기보다 핵심 차원이 생활성의 존속 기반을 형성하고 확장 차원이 공공적 공유 범위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또한, 각 차원은 개별 조사 항목으로 관찰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단일 합산점수로 구성하지 않았다.

〈표 3〉 종교유산의 생활성 지표 구성

구분		조작적 정의	활용 가능한 조사 항목
생활성 (핵심)	의례성	종교의식·수행·행사가 현재 이루어지는 정도	유산 목적성, 신앙 활동 활용 여부
	공동체성	종교인·신자·주민 공동체가 유산과 관계 맺는 정도	공동체 유형, 종교공동체 상주 형태
	일상성	유산이 일상적 종교생활에 활용되는 정도	상시 활용 여부, 종교인 거주 여부
	공간 복합성	종교 활동·역사상징·교육전시 기능이 중첩되는 정도	기능·공간 분류
생활성 (확장)	개방성	신자와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정도	일반인 개방 여부, 접근성
	활용성	교육, 전시, 체험, 순례 등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정도	활용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유형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생활성 관점에서 종교유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를 개발하고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조사 착수 기준일인 2025년 9월 16일 현재 국가지정·등록된 종교유산 1,987건으로 한정하였다.²² 또한 결과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소유자 및 관리자 개별접촉에 의한 응답으로 진행했으며, 2025년 9월 22일~2025년 12월 5일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내용은 기본 정보, 소유 및 관리 주체, 물리적 상태 등 일반적인 문화유산 조사항목이 포함되며, 종교유산만의 특성인 생활성을 포함하였다.

조사대상 1,987건 중 조사표가 회수되지 않았거나 핵심 항목을 확인할 수 없었던 615건을 제외하고 1,372건을 분석하였다. 미응답(615건)은 개인 소장, 관리정보 분산 및 조사 거부 등과 관련되어 있어 무작위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조사 접근성이 낮은 유산이 과소대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종교별 사례 수의 편차가 크므로 종교별 결과는 모집단 추정치가 아니라 응답자료에서 나타난 탐색적 경향으로 해석하였다.

〈표 4〉 조사된 종교유산 현황

구분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기타
사례 수	(1186)	(70)	(51)	(31)	(34)
국보	9.9	0.0	0.0	0.0	0.0
보물	81.1	50.0	0.0	0.0	0.0

22 이는 〈표 1〉의 2025년 12월 31일 기준 1,997건과 기준일이 달라 10건의 차이가 있다.

구분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기타
사적	4.0	41.4	9.8	6.5	23.5
명승	0.5	0.0	0.0	0.0	0.0
천연기념물	1.3	0.0	0.0	0.0	0.0
국가민속문화유산	0.3	2.9	2.0	0.0	35.3
국가등록문화유산	2.8	5.7	88.2	93.5	4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IV. 생활성 지표의 탐색적 적용

■ 이하의 종교별 수치는 각 종교에 속한 응답 사례의 구성 양상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종교별 사례 수의 편차가 크고 통계적 차이 검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수치의 크기를 종교 간 생활성의 수준이나 우열로 해석하지 않는다.

1. 유산 성격과 공간기능

먼저 종교유산의 성격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자료에서 문화유산 보존가치 중심 유산은 63.3%, 종교활동 중심 유산은 36.7%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된 종교유산이 하나의 성격으로 환원되기보다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와 현재적 종교활동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별 응답 사례에서도 이러한 구성 양상은 동일하지 않았으며, 일부 종교에서는 문화유산 보존가치 중심 사례가, 다른 일부 종교에서는 종교활동 중심 사례가 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는 종교별 표본 구성과 지정유형의 차이가 반영된 기술통

계로 종교 간 생활성 수준의 차이나 우열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유산에 단일한 성격으로 파악하기보다 보존가치와 현재적 종교기능을 함께 조사·기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공간기능 역시 단일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는데, 종교활동 공간은 48.3%, 역사·상징 공간은 34.6%로 나타났다. 종교활동 공간은 의례, 종교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역사·상징 공간은 종교적 인물, 사건, 기억, 장소성과 결부된 공간이다. 종교별 사례의 공간기능 구성을 보면, 불교에서는 종교활동 공간, 역사·상징 공간 및 교육·전시 공간이 함께 확인되었다. 천주교와 개신교에서는 종교활동 공간으로 분류된 사례가 주로 확인되었고, 유교에서는 역사·상징 공간으로 분류된 사례가 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조사된 종교유산에서 유산의 성격과 공간기능이 단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종교별 구성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 공동체성과 신앙활동성

공동체성은 종교유산이 단순한 물리적 장소인지, 아니면 현재적 종교 실천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인지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다. 조사결과, 종교공동체가 상시 상주하는 유산은 55.5%, 필요한 경우에만 상주하는 유산은 4.1%, 종교공동체가 상주하지 않는 유산은 40.4%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유산의 절반 이상이 종교공동체의 지속적인 상주와 결합된 생활공간으로 기능하며, 일부 유산은 의례, 행사, 관리 등의 필요가 발생할 때 공동체가 일시적으로 상주하는 방식으로 생활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공동체의 상주 형태는 종교별 응답 사례에서 서로 다른 구성을 보였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사례에서는 상시 상주형이 주로

확인된 반면, 유교 사례에서는 비상주형이 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 간 생활성 수준의 차이를 의미하기보다 조사된 종교유산에서 공동체의 상주 형태가 종교별로 동일하지 않게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신앙활동 활용 여부 역시 현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조사결과, 신앙활동에 활용되는 유산은 52.8%, 활용되지 않는 유산은 47.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유산의 생활성이 공동체 상주 여부와 신앙활동 활용 여부에 의해 다층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종교공동체의 상주 형태와 신앙활동 활용 여부가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은 생활성이 하나의 항목만으로 파악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일상적 활용과 개방성

일상적 활용과 관련해서, 종교유산의 78.4%가 상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종교별 응답 사례에서도 상시 활용이 전반적으로 확인되었으나, 구성 양상은 종교별로 동일하지 않았다. 다만 종교별 사례 수와 지정유형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종교 간 활용 수준의 차이보다는 각 종교 응답 사례에서 나타난 활용 형태의 차이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개방성의 경우, 조사된 종교유산의 84.4%가 일반에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 응답 사례에서도 일반 개방 여부의 구성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당수의 종교유산이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개방성 역시 개별 종교

23 여기에서 일상적 활용이란 박물관에서처럼 전시 등의 활용이 아닌, 종교적 행위와 관련된 활용을 의미한다.

유산의 현재적 이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활용 프로그램도 종교유산의 생활성과 공공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국가유산 활용사업 참여 비율은 64.2%로 나타났으며, 교육·해설·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다만 국가유산 활용사업 참여 여부는 생활성의 핵심 차원과 별도로 외부 활용 범위를 나타내는 확장 지표로 해석하였다.

4. 핵심 생활성 조건의 동시 충족 사례

생활성의 핵심적 현재성을 탐색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조사자료 중 종교적 기능과 공동체의 현재적 사용을 직접 나타내는 여섯 조건, 즉 종교활동 중심성, 종교활동 공간성, 종교공동체의 상시 상주, 신앙 활동 활용성, 상시 활용성 및 종교인 거주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유산은 총 431건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된 종교 유산의 31.4%에 해당한다.²⁴ 종교별 응답 사례에서도 이러한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이는 종교별 사례 수와 지정유형의 차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종교 간 생활성 수준의 차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값이 아니라 조사자료 내에서 핵심 조건의 동시 충족 사례를 탐색적으로 확인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 결과는 조사자료에서 종교적 기능과 공동체의 현재적 사용을 나타내는 여섯 조건이 동시에 확인되는 사례가 일정 부분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유산은 물리적 보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살아있는 유산의 특성을 가진

24 431건은 생활성 6개 차원을 모두 반영한 종합점수가 아니라, 종교적 기능과 공동체의 현재적 사용을 직접 나타내는 핵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사례를 탐색적으로 식별한 결과이다.

다. 다만 종교별 사례 수와 미응답 구조를 고려할 때 한국 종교유산 전체의 비율로 일반화할 수 없다.

V. 정책적 함의 및 결론

1. 생활성 지표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는 종교유산 조사에서 물리적·행정적 정보뿐 아니라 종교적 기능, 공동체 상주, 신앙활동 및 공간 사용 정보를 함께 기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문화유산 보존가치 중심 유산이 63.3%, 종교활동 중심 유산이 36.7%로 나타난 결과는 종교유산의 성격을 단일 기준으로 파악하기보다 보존가치와 현재적 종교기능을 구분하여 조사·기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종교공동체 상주율 55.5%, 신앙활동 활용률 52.8%, 상시 활용률 78.4%라는 결과는 상당수 종교유산에서 보존·정비 행위가 현재의 종교생활과 직접 접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종교공동체의 상주 여부와 신앙활동 활용 여부 등 현재적 사용 정보를 현황 DB의 별도 항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 개방률 84.4%와 국가유산 활용사업 참여율 64.2%는 종교유산이 상당한 공공적 접근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개방성과 프로그램 운영만으로 생활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개방성 및 활용성은 의례성, 공동체성, 일상성, 공간복합성의 상태를 보완하는 확장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종교적 기능과 공동체의 현재적 사용을 나타내는 여섯 가

지 핵심 생활성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사례는 431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원 우선순위나 공식 유형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후속 현장조사의 대상 범위를 설정하는 참고자료로 제한하여 활용해야 한다.

2. 종교유산 DB의 재설계

생활성 지표의 또 다른 함의는 종교유산 DB의 재설계 필요성이다. 기존 문화유산 DB는 대체로 명칭, 위치, 지정유형, 지정연도, 소유·관리 주체, 보존상태, 보수 이력 등 물리적, 행정적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이러한 정보는 문화유산 관리의 기본자료로 중요하지만 종교유산의 생활성을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종교유산 DB는 물리적 현황 정보에 더해 종교적 기능과 공동체 기반을 함께 기록해야 한다. 가치기반 유산관리의 관점에서도 유산 목록과 관리 정보는 전문가가 설정한 역사적·건축적 기준에만 의존하기보다 공동체가 현재 중요하게 인식하는 장소,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공간, 의례와 기억이 지속되는 장소를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다.²⁵

구체적으로 신앙활동 여부, 의례·행사 활용 여부, 종교공동체 상주 여부, 공동체 유형, 종교인 거주 여부, 종교활동 공간 여부, 일반인 개방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종교유산을 단순한 문화유산 목록이 아니라 주요 정책대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며, 종교유산의 개념적 특수성을 구체적 정책도구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종교유산 DB는 기존의 물리적·행정적 정보에 더해 유산의 현재적 종교기능과 공동체적 기반을 함께 기록하는 구조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25 T. Sharma, *op. cit.*, pp.189~191.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살아있는 유산 논의를 조사 가능한 지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종교유산의 살아있음은 그동안 주로 이론적이거나 선언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살아있음을 의례성, 공동체성, 일상성, 공간복합성의 핵심 차원과 개방성, 활용성의 확장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실태조사 항목과 연결하였다. 이를 통해 종교유산의 생활성은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관찰되고 기록될 수 있는 정책 정보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미응답이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종교별 사례 수의 편차로 인해 분석결과를 전체 종교유산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관리자 응답에 기초한 실태조사이므로 의례의 빈도, 참여 공동체의 규모, 공동체 구성원의 인식과 같은 질적 차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지표 항목의 탐색적 적용에 머물러 차원별 가중치, 지표의 안정성 및 종교별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향후 반복조사와 현장검증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생활성 지표는 기존의 물리적 보존정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기능, 공동체 기반 및 현재적 공간 사용을 보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기초도구이다. 향후 반복조사와 현장검증을 통해 지표의 안정성, 종교별 적용 가능성 및 정책적 활용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산청, 『통계로 보는 국가유산 2025』, 2026.

Aquino, L. F. C. de & França Filho, M. T., “Law and Sacred Heritage: Towards a Juridical Definition of Religious Cultural Heritage”,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2025), <https://journals.law.harvard.edu/ilj/2025/04/law-and-sacred-heritage-towards-a-juridical-definition-of-religious-cultural-heritage/>, 접속일자: 2026년 3월 5일.

Burchardt, M. & Ural, N. Y., “The Future of Religious Pasts: Religion and Cultural Heritage-Making in a Secular Age—Introduction”, *Cultural Studies*, 38/5(2024), pp.717~732.

Chae, K., “Religious Heritage and the Governance of Living Sacred Space: A Multi-Religious Perspective”, *Religions*, 17/4(2026), article 466, pp.1~17.

Fernández-Álvarez, O., González-González, M. & Ouali-Fernández, S., “Religious Heritage: Reconciliation between Spirituality and Cultural Concerns”, *Rupkatha Journal*, 14/4(2022), pp.1~13.

Niedźwiedz, A.,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Sacred Heritage: Religions and Material Culture”, *Religions*, 15/12(2024), article 1520, pp.1~5.

Sharma, T., “The Paradox of Valuing the Invaluable: Managing Cultural Values in Heritage Places”, in E. Avrami, S. Macdonald, R. Mason & D. Myers(eds.), *Values in Heritage Management: Emerging Approaches and Research Directions*, Los Angeles, CA: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2019, pp.186~198.

Smith, L., *Uses of Heritage*, London-New York: Routledge, 2006.

- Stovel, H., "Introduction", in H. Stovel, N. Stanley-Price & R. Killick(eds.), *Conservation of Living Religious Heritage*, Rome: ICCROM, 2005, pp.1~11.
- Tamma, M. & Sartori, R., "Religious Heritage: Sharing and Integrating Values, Fruition, Resources, Responsibilities", in S. Pinton & L. Zagato(eds.), *Cultural Heritage: Scenarios 2015-2017*, Venice: Edizioni Ca' Foscari, 2017, pp.557~572.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Initiative on Heritage of Religious Interest", <https://whc.unesco.org/en/religious-sacred-heritage/>, 접속일자: 2026년 3월 10일.
- van Dijk, M., Irving, A. & Weir, T., "We Have Heritage, Therefore We Are: Introduction to the Teaching of Heritage in a Diverse Europe", in A. Barel et al., *Inclusion, Religion and Heritage in Secular Adult-Learning: A Train the Trainer Handbook*, REBELAH, 2022, pp.10~23.



■ 본 연구는 종교유산을 물리적 보존대상이 아니라 신앙행위, 공동체, 공간의 지속적 활용이 결합된 살아있는 유산으로 보고, 이를 조사 가능한 생활성 지표체계로 구성하여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헌검토와 주요 종교별 종교유산 전문가 대상 자문을 통해 생활성을 의례성, 공동체성, 일상성, 공간복합성의 핵심 차원과 개방성, 활용성의 확장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가지정·등록 종교유산 1,987건을 조사하여 1,372건의 유효응답을 확보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유산 보존가치 중심 유산은 63.3%, 종교활동 중심 유산은 36.7%였으며, 종교공동체 상주율은 55.5%, 신앙활동 활용률은 52.8%, 상시 활용률은 78.4%, 일반 개방률은 84.4%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설정한 여섯 가지 핵심 생활성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유산은 431건으로 유효응답의 31.4%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살아있는 종교유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물리적·행정적 정보에 의례, 공동체, 공간기능 및 현재적 활용을 포괄하는 생활성 정보를 보완적으로 조사·기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종교유산, 살아있는 유산, 생활성, 생활성 지표체계, 종교공동체, 종교적 실천, 국가유산정책



Korean Religious Heritage as Living Heritage: Development and Exploratory Application of a Vitality Indicator Framework

Chae, Kyung Jin

(National Heritage Policy Institute · Policy Research Office · Director)

■ This study develops and exploratorily applies a vitality indicator framework for Korean religious heritage. Religious heritage is conceptualized not merely as a physical object of conservation but as living heritage sustained by religious practices, communities, and the ongoing use of space.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nine consultations with religious and heritage experts, vitality was organized into four core dimensions — rituality, community, everyday use, and spatial complexity — and two extended dimensions—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A survey of 1,987 nationally designated or registered religious heritage properties yielded 1,372 valid responses. The results show that 63.3% of the properties were primarily oriented toward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while 36.7% were oriented toward religious activities. Religious communities permanently resided at 55.5% of

the properties, 52.8% were used for religious activities, 78.4% were regularly used, and 84.4% were open to the public. A total of 431 heritage sites, representing 31.4% of valid responses, met all six core vitality conditions identified in this stud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o better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living religious heritage, existing physical and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ould be complemented by systematically documenting vitality-related information encompassing ritual practices, community presence, spatial functions, and contemporary use.

Keywords: religious heritage, living heritage, vitality, vitality indicator framework, religious community, religious practice, heritage policy

- ◎ 투고 접수 2026. 06. 30.
- ◎ 심사 완료 2026. 08. 04.
- ◎ 게재 결정 2026. 08. 05.